

2013
4



C O N T E N T S

◆ (도시이야기)

- 녹색 회랑을 통한 녹색도시의 실현(II)

◆ (기획연재)

- 인천의 지명 유래(중구II)

◆ 도시계획 포커스

- 법률 개정사항
- 새로운 정책

◆ 인천시 도시정책 동향

- 조례·규칙 개정사항
- 주요정책



도 시 계 획 과



1. 인천시 녹색도시회랑 기본방향 설정

1) 생태적 가치가 높은 생태축 보전

녹색도시회랑은 생태계의 보전, 주민건강 증진, 여가 및 운동 공간, 역사·문화자원의 활용 등 다양한 기능을 갖는다. 인천시의 핵심생태축은 생태건강성 유지에 가장 중요한 지역이므로 보전위주의 녹색도시회랑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보전하여 녹색기반을 형성한 후에 다양한 주제를 가진 녹색도시회랑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녹색도시회랑의 활용을 통해 국민의 건강도 증진시킬 수 있다.

2) 도시계획시설 설치 및 연계

녹색도시회랑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간과 새로 조성되는 녹색도시회랑을 통합하여 활용하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기 설치된 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 광장, 하천, 보행자도로 등)과 녹색도시회랑을 물리적으로 연결하고, 신규로 조성이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은 녹색도시회랑 변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녹색도시회랑과 도시계획시설과의 연계로 주민편의 증대와 보행 및 자전거 중심의 생활패턴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인천시 주요 거점 연계

인천시의 면적은 약 1,000km²이며, 다양한 역사문화, 해양생태자원이 산재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자원을 하나의 녹색도시회랑을 연결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송도, 청라, 영종 등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을 인천시 녹색도시회랑의 거점으로 선택

정하고, 이를 연계하는 방향으로 광역 녹색도시회랑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거점별로 주변 지역의 역사문화, 해양생태자원을 연계하는 생활권 녹색도시회랑을 조성하여 녹색도시회랑의 활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2. 인천시 녹색도시회랑 조성방안

1) 녹색도시회랑 유형 및 기능

녹색도시회랑은 인천시의 자연자원, 문화재 등의 어메니티 자원(녹색도시회랑에서 활용하는 자원)의 종류, 회랑의 입지지역 특성, 기존 옛길의 성격 등 다양한 특성에 따라 유형화가 가능하다. 또한 녹색도시회랑의 유형화는 향후 녹색도시회랑 조성시의 도입시설 구분 등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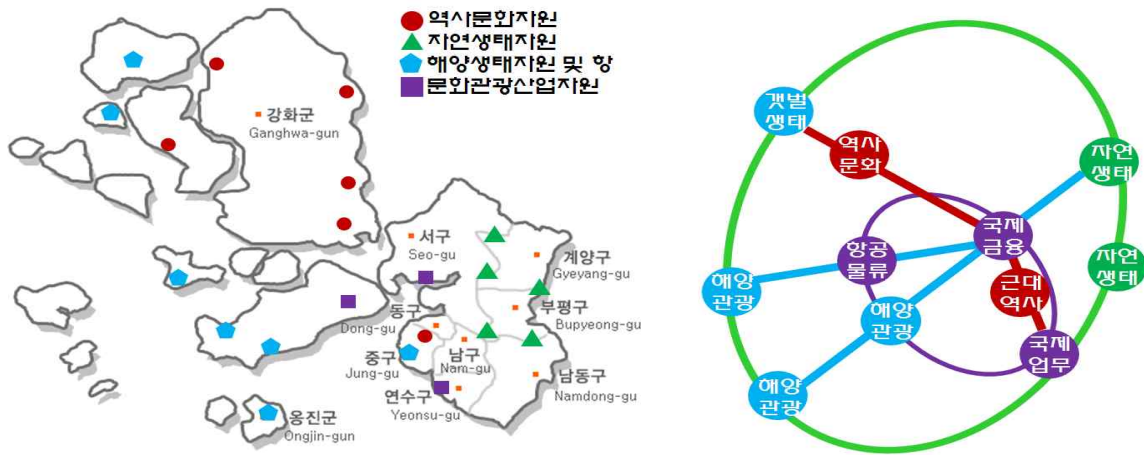
인천시 녹색도시회랑의 유형화는 기존문헌 및 인천시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기존문헌은 국토연구원의 건강·문화·생태회랑 구축 전략연구에 기초하였다. 또한 인천시 근대문화 특성, 해안에 접하고 섬이 많은 지리적 특성, 구시가지와 신도시 지역간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① 역사문화형, ② 해양생태형, ③ 건강체육형, ④ 여가형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역사문화형 녹색도시회랑은 인천시의 다양한 역사문화자원과 문화재 및 문화시설을 연계할 수 있도록 형태로 조성, 해양생태형은 산맥, 숲, 해안 등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시설의 조성보다는 걷기 및 관찰 위주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하며, 도시녹지축 형성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건강체육형 녹색도시회랑은 걷기 및 자전거 문화 확산에 대응하여 다양한 주제를 가진 탐방로에서부터 도시민의 일상적인 운동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는 회랑

<표 1> 인천시 녹색도시회랑 유형별 기능

구분	주요 테마	주요기능
역사문화형	옛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의 다양한 역사 문화 자원 활용 문화재 및 문화시설 연결
해양생태형	푸른해안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맥, 숲, 습지, 하천 등을 활용하고 시설보다는 걷기 위주와 관찰 위주 활동이 이루어지는 길 녹지축 연결 및 도시 주변지역에서 환경 친화적인 여가공간의 제공, 도시 녹지축의 형성 등의 기능
건강체육형	인천둘레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걷기 및 자전거 문화 확산에 대응하여 다양한 주제를 가진 탐방로에서부터 도시민의 일상적인 운동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는 회랑 사색과 걷기를 통한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도모
여가레저형	도심속녹색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길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공간 제공



<그림 1> 녹색도시회랑 관련 자원 현황 및 개념도

으로 조성, 여가레저형은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길로서 인천시의 신도시(송도신도시 등) 및 도시재생사업(루원시티 등) 지역 등 거점지역을 연계하는 형태로 조성할 수 있다.

2) 유형별 녹색도시회랑 조성방안

□ 역사문화형 녹색도시회랑

인천의 역사문화형 녹색도시회랑은 구한말 개항기 인천의 역사를 담은 스토리텔링화 기법의 적용하여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천은 고려항쟁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있는 강화도, 개항기의 차이나타운,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인 팔미도 등대, 근대 역사를 담고 있는 인천상륙기념관, 인천시립박물관 등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이 산재하고 있어, 이를 연결하는 방향으로 회랑을 조성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원고에서는 강화도-차이나타운-근대역사공간을 연결하는 118km의 역사문화형 녹색도시회랑을 제안한다.

이 경우 역사적인 건축물을 보존하고, 옛 정치를 느낄 수 있는 벼룩시장 조성, 가족형 숙박시설 등의 시설을 도입하여 회랑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그림 2> 일본식민지 시대의 대만 총독부(근대건축물 보존)



<그림 3>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뵘뮈르 벼룩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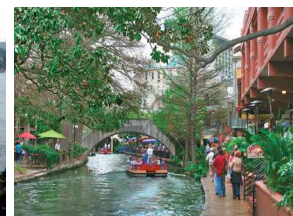
□ 해양생태형 녹색도시회랑

해양생태형 녹색도시회랑은 해양생태계가 우수하게 보존된 지역을 중심으로 조성하여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을 전제로 최소한의 이용을 원칙으로 설계를 한다. 인천은 해안가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에 따라 강화도, 영종도 등의 섬이 다수 존재하는 등 해양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이러한 해양생태자원을 연계하는 해양생태 녹색도시회랑과 해양의 레저문화를 연계하는 해양테저로 구분하여 각 27km, 34km를 제안하였다.

또한 해양생태자원 탐방을 지원하는 생태탐방정보센터, 안내 및 편의시설 등으로 도입시설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상점 등을 입지시켜 환경적인 부하를 최소화시키는 형태의 개발이 요구된다.



<그림 4> 제주 해안길



<그림 5> 샌안토니오 리버워크



□ 건강체육형 녹색도시회랑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체육형 녹색도시회랑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 강화에 초점을 맞춰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천은 계양산, 철마산, 원적산 등 산악지형이 존재하고 있어, 산악자전거(MTV)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성할 필요가 있다. 본 원고에서는 계양산-철마산-원적산-만월산-인천대공원-춘덕산을 연계하는 약 53km의 회랑을 제안한다.

이 경우 자전거의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의 대여, 수리,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자전거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고 지역특산물 판매장 등을 설치하여 회랑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그림 6> 담양 메타세쿼이아길



<그림 7> 마을의 하천길

□ 여가레저형 녹색도시회랑

여가레저형 녹색도시회랑은 인천시의 주요거점(송도신도시 등)을 연결하는 도시형 회랑으로서 도시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을 회랑주변에 배치하여 주민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천은

송도신도시 외에도 청라 등의 신도시와 루원시티와 같은 도시재생사업이 동시에 추진 중에 있는 지역으로 이를 연결하는 31km의 여가레저형 녹색도시회랑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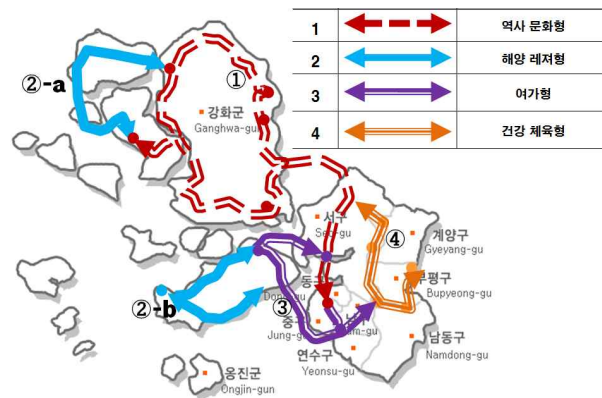
특히 여가레저형 녹색도시회랑은 주민자치센터, 우체국 등의 관공서와 쇼핑몰 및 대형마트, 극장,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을 회랑주변에 배치하여 도시민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8> 파리 라발레르 공원



<그림 9> 울산대공원



<그림 10> 인천시 녹색도시회랑 구상(안)

<표 2> 인천시 녹색도시회랑 종합 구상(안)

구분	역사문화형	해양생태형		건강체육형	여가레저형
설계 개념 (방향)	▪ 구한말 개항기 인천의 역사를 담은 스토리텔링화 기법	▪ 시설설치를 지양하고 자연자원 탐방을 중심으로 설계		▪ 자전거 이용 확대를 위한 자전거 편의시설 확충	▪ 도시기반시설 도입을 통한 주민편의 극대화
도입 시설	▪ 역사적 건축물 보존 ▪ 벼룩시장 ▪ 가족형 숙박시설 등	▪ 생태탐방 정보센터 ▪ 친환경 상점 ▪ 안내 및 편의시설 등		▪ 자전거 커뮤니티 센터 ▪ 지역특산물 판매장 ▪ 공원 및 광장 등	▪ 관공서(우체국 등) ▪ 쇼핑몰 및 대형마트 ▪ 문화시설(극장 등) 등
주요 구간	강화도(고려항쟁) 및 차이나타운, 근대역사공간 연결	해양생태	해양레저	계양산-철마산-원적산-만월산-인천대공원-춘덕산	영종하늘도시, 청라국제도시, 송도국제도시 연결
		해양생태 자원 연결	해양생태자원 및 레저문화연결		
거리	약 118km	약 27km	약 34km	약 53km	약 31km
	약 263km				



3) 녹색도시회랑 단계별 조성계획

□ 1단계: 녹색도시회랑 자원분포 작성

인천시는 역사·문화자원, 해양·생태자원, 건강·체육, 여가 등 다양한 자원이 8개구 2개군에 산재해 있다. 산재된 자원에 대해서 인천광역시 차원의 활용자원을 구분하여 자원분포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 2단계: 자원 활용시스템 계획

자원 활용시스템 계획은 주민들에게 좀더 나은 회랑 이용(아외활동)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별 회랑의 성격, 기능 등을 고려하여 어메니티 자원 활용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원 활용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은 어메니티 자원에 따라 관찰, 체험, 휴양, 문화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단계: 인천시 녹색도시회랑 거점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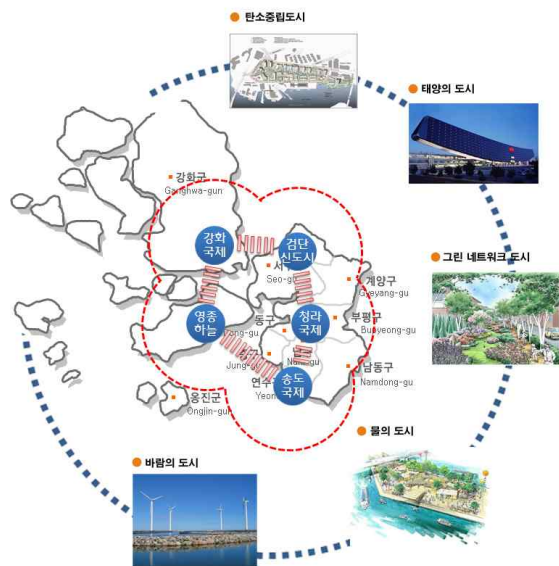
인천시는 동서거리 192.23km, 남북거리 117.60km, 면적 1,002.07km²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광범위한 면적으로 인하여 하나의 녹색도시회랑을 통해 인천 전지역을 연계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거점지역을 마련하여 거점지역을 연계하는 광역적 차원의 주 녹색도시회랑을 마련하고,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 녹색도시회랑을 구성하여 회랑의 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녹색도시회랑은 회랑과 연계한 도시기반시설을 설치 가능한 신도시 지역(송도 등)을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4단계: 녹색도시회랑 비전 제시·공유

녹색도시회랑에서 활용가능한 자원분포와 자원의 활용시스템을 계획하였으면, 인천시 녹색도시회랑(광역차원의 주 녹색도시회랑)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주민과 공유하여 녹색도시회랑에 대한 이해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감대 형성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 5단계: 지역별 녹색도시회랑 계획 수립

4단계 녹색도시회랑 비전 제시·공유를 통해 광역차원의 주 녹색도시회랑에 대한 큰 틀의 계획방향을 수립하였으면, 계획수립 방향을 기초로 지역별(자치구 차원, 생활권 차원) 녹색도시회랑 계획을 수립한다.



<그림 11> 녹색도시회랑을 통한 컴팩&스마트 시티 연계방안

<표 3> 인천시 녹색도시회랑 거점(예시)

구 분	테 마	주요 전략(예시)
송 도	바람의 도시	▪ 바람에너지 활용, 바람길 네트워크 도시
영 종	물의 도시	▪ 조력, 해수열 등 해양에너지 활용 ▪ 해양 교통을 활용한 도시 및 수공간 네트워크 도시
청 라	그린네트워크 도시	▪ 녹지 네트워크 도시임체녹화 상징 건축물 ▪ 옥상 녹화/도로 녹화/벽면 녹화/인공구조물 녹화 등
검 단	태양의 도시	▪ 태양열, 태양광 에너지 활용 ▪ 태양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패시브 주택 등
강 화	탄소중립도시	▪ 녹색토지이용/녹색교통/녹색에너지/녹색건축/녹색산업/녹색생활 등 모든 요소 적용



3. 인천시 녹색도시회랑 추진방안

1) 재원확보 및 사업추진방식

녹색도시회랑은 도시의 기본인프라로서, 인천시에서 재정을 투입하여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추진 방식은 사업비 조달방식과 관련이 있다. 인천시 자체개발, 공기업을 조성하는 공영개발, 민간이 참여하는 제3섹터방식, BTL(Build Transfer Lease) 방식, 민자개발방식, 비영리법인 등 조합에 의한 개발방식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인천시 자체개발으로 경우에도 인천시는 토지확보 또는 녹색도시회랑 조성비 등 물리적 환경개선에 집중이 필요하다. 또한 녹색도시회랑의 운영·관리비와 프로그램 개발비 등 비물리적 요소는 기업 또는 개인의 기부금, 재단의 설립 등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민간참여 확대 및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 광장 등) 조성은 수익이 보장되지 않아 민간참여가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수익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상업시설 등의 도입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공원내 도입시설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녹색도시회랑의 조성에서 민간참여 및 녹색도시회랑의 활성화 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녹색도시회랑의 규모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연장, 문화시설, 호텔 등 숙박시설, 수영장 등 체육시설 등의 도입이 가능하도록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주민참여는 일반적으로 시민 등 이해당사자들이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일부 의사결정행위는 개인의 재산권에 도움이나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참여주민의 ① 대표성, ② 전문성, ③ 공익성 등의 문제에 대한 사전예방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인천시 녹색도시회랑 조성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 협의체¹⁾ 및 주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²⁾ 등을 제안한다. 주민,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참여주민의 대표성, 전문성, 공익성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주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역량강화와 지속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아울러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들의 정책적 순응, 참여그룹(행정, 시민, 사업시행사 등) 상호

간의 합의협성 등을 기대할 수 있다.

3) 중앙부처 정책사업 연계방안

녹색도시회랑 조성과 관련하여 환경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2010년에서 2019년까지 10년간 전국을 자전거길로 연결하는 국가자전거도로(약 3,120 km) 네트워크 조성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인천시는 2010년 인천시 남부권역과 청라지구를 연계하는 도심 생활형 자전거 도로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또한 환경부 및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계양산-원적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까지 1,000억원(기금, 국고, 지방비 포함)을 투자하여 삼천리길 1,200km를 전국단위의 문화생태탐방로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중 평화생명길, 동해안권, 백두대간 등을 단기적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강화도를 포함하는 평화생명길과의 연계방안이 필요하다.

<표 4> 중앙정부 정책사업 연계방안

구 분	주요 연계방안
DMZ 접경지역선 (평화생명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화지역과 DMZ접경지역선 연계방안 마련 영종하늘도시→강화국제도시→DMZ접경지역선 연계 추진
수도권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단신도시와 수도권선 연계방안 마련 인천 도심재생사업→청라국제업무지구→검단신도시→수도권선 연계 추진
서해안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라국제업무지구와 서해안선 연계(2010년 시범사업) 인천시 도심재생사업(루원시티 등), 영종하늘도시, 송도국제업무지구와 서해안선 연계방안 마련 강화→DMZ접경지역선→서해안선 연계 추진

- 1) 협의체는 지역시민, 지역단체, 개발기관, 지역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며, 계획수립과정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사업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계획수립단계부터 시민의 의견 반영 및 조성과정 속에서 자문활동을 하는 자문기구이다. 협의체는 개발계획을 무조건 반대만 해오던 네거티브(negative)적 시민운동방식에서 벗어나, 협의과정을 거쳐 친환경적인 개발 대안을 제시하는 포지티브(positive)적 시민참여 도시개혁 시민운동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 2) 주민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도시계획 수립과정의 전문성을 확보해주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전 동 (錢洞)

전동은 다소면 선창리에 속한 야트막한 산지(山地)였다. 1892년 이곳에는 현대식 화폐를 만드는 기관 전환국(典圀局)이 설치돼 1900년 서울 용산으로 옮겨갈 때까지 운영됐다. 전환국이 서울로 옮겨간 뒤 부내면에 속했는데 1906년 전동(典洞)으로 불리다가 1914년 전국적인 행정구역 통폐합 때 산근정(山根町)으로 바뀌었다. 1946년 전동(錢洞)으로 바뀌는데 전환국이 돈(錢)을 만드는 기관이었기 때문이다.

▶ 응봉산(鷹峰山)

전동에 있는 제물포 고등학교의 뒷산 이름이 응봉산이다. 모양이 '매[鷹]의 부리'처럼 생겼다 해서 붙여졌다고 하나 순 우리말로 산을 뜻하는 뫼, 매와 뾰족한 것을 의미하는 부리의 합성어인데 이를 한자로 고치면서 응봉산이 된 것이다.

▶ 오폭산(午砲山)

응봉산은 시계가 귀했던 1910~20년대에 사람들에게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 대포를 걸어 놓고 매일 낮 12시 정각이면 한 방씩 공포를 쏘았던 탓에 오폭산(午砲山)이라 불렸다.

▶ 웃터골

일제 때 오폭산(午砲山) 관측소 밑에 자리잡은 넓은 분지를 이르던 지명이었다. 지금의 제물포고등학교 교정이다. 시내에서 높이 올라다보이는 곳이어서 웃터골로 부른 듯하다.



각국공원

▶ 만국공원(萬國公園)

인천을 대표하는 공원중 하나인 만국공원은 1888년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공원이다. 인천항 개항 이후 인천으로 몰려든 서양 사람들이 한데 모여 살던 만국지계(萬國地界)안에 공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 각국공원(各國公園)

만국지계는 달리 각국지계(各國地界)라고도 불렸기에 이 공원은 각국 공원이라는 이름도 갖고 있었다.

▶ 서공원(西公園)

일본이 우리 나라를 강제로 병합시킨 뒤 이들 조계는 일본의 압력으로 없어지게 돼 1913년 4월 만국조계에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청국조계도 없어지고 말았다. 그 뒤 일제는 지금의 인천여상 자리에 자신들의 신사(神社)를 세워 그곳을 동공원(東公園)이라 부르면서, 그 맞은편에 있는 만국공원의 이름을 서공원(西公園)이라고 바꾸었다.

▶ 자유공원(自由公園)

1945년 광복이 되자 서공원은 다시 만국공원이라는 이름을 되찾았다. 그러나 한국전쟁을 겪고 난 1957년 이승만 정부는 우리의 건국기념일인 개천절에 이곳에 맥아더 동상의 제막식을 가지면서 공원의 이름을 자유공원으로 바꿨다.



인천전환국



현재 동인천동 주민센터 입지



자유공원



북성동(北城洞)

구한말 인천부 부내면 지역으로 한적한 어촌과 산지였다. 1903년 만석동에 편입되었다가 1912년 화방정(花房町) 1~3정목으로 인천부에 편입됐다. 화방은 일본 공사였던 하나부사(花房義質)를 일컫는 말로, 그가 이곳에 처음 상륙했다 하여 일본인들이 갖다 붙인 이름이다. 1946년 옛날 북성(北城)이 있던 곳이라 하여 북성동이라는 이름으로 고쳐 불렀다. 1977년에는 인근 선린동과 행정동으로 합쳐졌다.

▶ 북성곶(北城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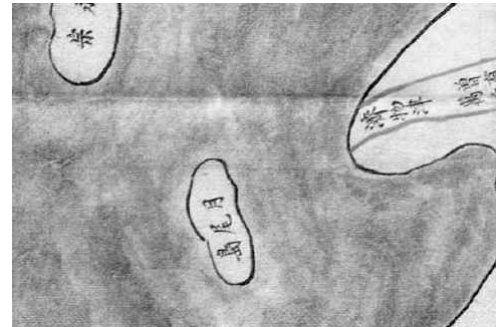
북성구자라고도 했는데 대한늪분 뒤쪽 바다로 길게 뻗은 포구였다.

▶ 북성포대

병인양요 이후에는 외국의 침략에 대비해 북성 주변 바닷가에 북성포대를 세우기도 했지만, 인천항이 개항하면서 이도 필요가 없게 돼 결국 없어지고 말았다. 하지만 인천항이 개항한 뒤 외국인들이 이곳으로 많이 몰려들면서 새로운 변화를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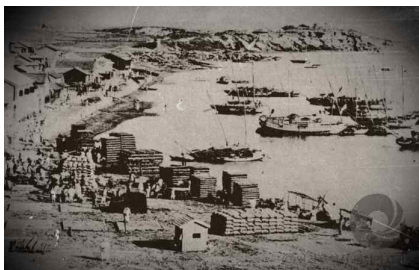
▶ 월미도(月尾島)

1866년 병인양요 때 우리나라를 침공한 불란서 제독 로즈(Rose)의 이름을 따 저들이 로즈섬이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1872지방지도(인천부지도)』의 북성동(월미도) 일대

항동(港洞)



옛 인천항 칠통마당

항동은 선착장과 여객부두, 세관 등 인천항의 주요 시설이 있는 곳이란 뜻에서 생긴 동명이다. 현재의 항동은 대부분 바다였으며 구한말 부내면에 속해 있었다.

▶ 칠통마당

지금의 하버파크호텔 해안 일대를 부르던 말로 각지에서 실어 오는 뱃섬을 하역하던 선창이다. 지금은 인천 내항의 도크에 포함되었다.

▶ 제물포 포구

현 파라다이스 호텔 아래쪽 기독교 선교 100주년 탑과 중부경찰서가 있는 일대 항동 지역이 제물포 포구 자리로서 1883년 개항한 개항장이다.



2011년 현재 인천항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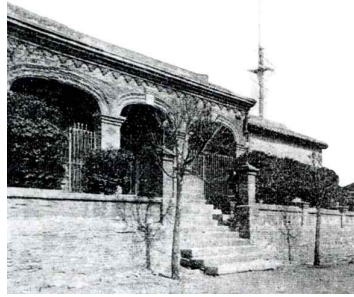
선린동(善隣洞)

인천부 부내면에 속한 지역이었다. 청국지계에 해당하던 곳으로 1914년 지나정(支那町)이라 하여 인천부에 편입하였다. 1936년 1차 부역 확장 때에는 미생정(彌生町)으로 고쳤다. 광복 후 친선을 도모한다는 의미에서 선린동으로 하였다. 1977년 북성동과 통합되었다.



▶ 청관(淸館)

선린동 일대 중국인들이 모여 살던 곳을 이르는 말이다. 현 인천화교소학교 자리에 청국 영사관인 이사부(理事府)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처럼 청나라 관청이 있는 동네라는 뜻에서 이렇게 불렀다.



소실된 청국영사관



현존하는 청국영사관 회의청
<http://blog.naver.com/razzockkr/20142290122>

신 포 동 (新浦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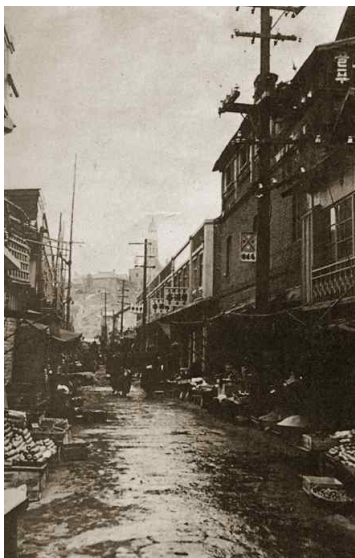
인천항 개항 이후에 생긴 지명으로 원래는 구한말 다소면 선창리에 속해 있었다. 1903년 부나면이 생길 때 새로 번창하는 마을이라는 뜻에서 신창동(新昌洞)이라고 했다. 1930년대 들어 개포동(開甫洞), 혹은 일본식으로 화정(花町)으로 불렸다. 화정은 사창가를 뜻하는 이름으로, 답동성당 언덕 아래나 인천여상 주변이 일본인 사창가여서 붙였던 이름이다. 한때는 신정(新町)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다가 1946년 신포동이 되었다. 1977년에 사동, 신생동, 답동과 신포동을 합해 행정동으로 신포동이 됐다.

▶ 터진개

원래 이름은 순 우리말로 터진개였고, 한자로는 탁포(坵浦)였다. 바다 쪽으로 터져 있고 배가 드나드는 갯가여서 붙은 이름이다.

▶ 달전거리

터전가에 있던 달과 달같이 가장 많이 흥정되던 시장 거리이다. 인천 인근에서 배로 실어 날랐다.



1956년 신포시장
<http://db0353.blog.me/10089769251>



1968년 신포시장
<http://db0353.blog.me/10089769251>



2010년 신포시장
<http://db0353.blog.me/10089769251>

▶ 김원태(인천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참고문헌 : 인천역사 6호 - 인천 지명의 재발견,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2009
한국지명유래집 : 중부편,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2008



□ 법률 개정사항

[2013-3-2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시장·군수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 저상버스 도입 계획을 고려하여 버스정류장 및 도로 등을 정비하는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항목에 교통수단,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에 대한 교통약자의 만족도를 추가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의견이 관련 정책의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함. <교통안전복지과>

[2013-3-13 건축물의 단열기준 강화 등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향상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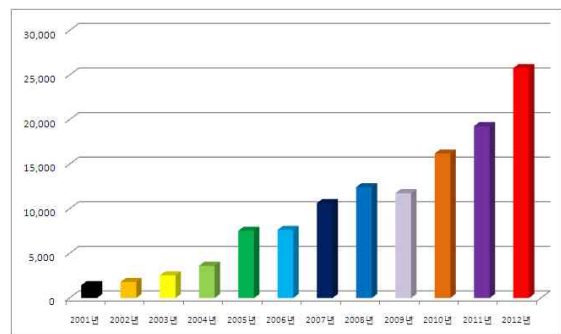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2.23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개정·고시함. 개정되는 사항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기준 강화) 단열기준 에너지성능 지표 검토서의 평가 기준을 강화 : 단열기준 10~30%,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지표 합계 점수를 65점 이상. ②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연면적 합계 5백㎡ 이상. ③ (에너지 소비총량 적용대상 건축물 확대) 에너지 소비총량 적용대상을 연면적 합계 3천㎡ 이상 업무용 건축물. ④ (기타) 에너지 효율 향상에 효과가 높은 항목에 대해 배점 상향조정, 창문연계 냉난방시설 자동제어시스템 설치를 평가항목에 추가함. 2017년부터 패시브하우스 수준의 설계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임. <녹색건축과>

□ 새로운 정책

[2013-3-5 “조상 땅 찾기”, 이용자 전년비 33.7% 상승]

2012년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 국민이 지난해에 비해 33.7% 늘었음.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사도, 시·군·구에 민원을 신청하면 상속인에게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알려줌으로써 상속 등 재산관리를 도와주고자 하는 제도임.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한 이유는 시스템을 개편하여 전국 사·도·나 시·군·구 민원실 어디에서나 이름만으로 조상 땅을 찾아볼 수 있고, 주민등록 번호 없는 조상도 이름만으로 조상

명의를 땅을 조회할 수 있는 편리성을 증가 시켰기 때문임. 또한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직계존비속에 한정하여 형제자매 및 4촌 이내 방계 혈족도 상속권자면 누구나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한 것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됨. 특히 금년에는 ‘조상 땅 찾기’를 시도, 시·군·구 민원실을 방문하지 않고 안방에서 인터넷을 통한 무방문 신청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노약자, 장애인 등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임. <국가공간정보센터>



제공 년도별 증감 추이('11년 대비 '12년 33.7% 증가)

[2013-3-18 노후 공공건축물의 변신! 그린 리모델링으로 재탄생!]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을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으로 지정하고, 청주 시립미술관 등 총 10개 건축물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함. 건축물 부문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노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모범사례를 창출하고자 함. 시공지원사업에 청주 시립미술관 등 4개소와 설계지원사업에 광주 주월초교 등 6개소가 선정되었음. 공사비를 지원하는 시공지원사업은 시공재를 개선하여 요소별 에너지절감 효과를 파악하고, 설계를 지원하는 설계지원사업은 그린리모델링 요소를 발굴하여 최소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수준으로 개선을 유도함. 향후 위탁사업

■ 시범사업 대상 건축물

시공지원사업 (4개, 총 15억원)	청주 시립미술관, 전복고창 동리국악당, 충북대학교 생활관, 경북영주 문수면사무소
설계지원사업 (6개, 총 5억원)	광주 주월초교, 부천원미시립도서관, 광주임동 근로자종합복지관, 문경시청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서울세관 별관



시행자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관련 전문가와 구조·에너지 진단,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사후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민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할 계획임. 상대적으로 에너지 절감이 어려웠던 기존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됨. <녹색건축>

[2013-3-20 공간 융합정보 생성 기술/업무모델 특허를 통한 공간정보산업 경쟁력 높인다]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의한 지적·건축물 공간 정보 융합 방법」에 관한 BM특허를 등록하여 공공분야와 민간산업에 무상으로 공유함. BM특허 등록은 국토해양부 최초 사례로 “공간정보(GIS)”상에 “설계도면(CAD)”을 작성하는 정보기술을 접목하여 행정절차를 개선한 특허로써, 공간정보 상의 실시간 건축물 갱신 정보를 정확한 위치기반에서 구축하여 공간정보로 유통이 가능하게 함. 국민에게 쉽게 이해되고 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일사편리’라는 브랜드를 ‘12년 12월에 상표등록을 하고,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함. 이번 특허로 취득된 기술이 최신의 공간정보 융합방법을 담고 있어 공간정보 기반의 행정 고도화,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 공간정보의 해외진출 지원, 공간 빅데이터 구축에 기여 할 것임. 공간정보 기반의 행정 고도화는 세부적인 토지와 건축물의 종합정보까지 하나로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행정절차가 대폭 감소되며, 공간정보 기반으로 구축된 부동산 통합정보와 정보구축 기술을 기업에 공개함으로써 특정기업이나 개인의 독점적 남용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공간정보 산업계에서 과학적 상권분석, 고도화 된 도시·지역개발 컨설팅 등 일자리 창출



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함. 국토부는 중동, 동구권 지역의 지적제도 마련과 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해외진출시 공간정보 융합방법을 적용해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빅데이터와 관련해서도 이번 BM특허로 연결되는 부동산 통합정보가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임. 이번 BM특허 등록을 계기로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솔루션개발에 힘쓸 것이며, 향후 빅데이터 기술을 활성화하여 산업부분과 행정 등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 및 공유를 통한 정보공개문화 확산에 노력할 것임. <지적기획>

[2013-3-27 국토교통부, 2014년 지자체와 함께하는 ‘맞춤형 도시재생’의 새주인공을 찾다]

지역별 맞춤형 ‘도시만들기’를 위해 3월 27일 전국 9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4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예산신청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함. 이번 설명회는 2014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지자체에서 수립할 신규사업 제안서 및 예산신청서 작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한 것임. 향후 추진은 5월까지 신청을 받은 후 내부검토를 거쳐 6월 중 선정(안)을 기획재정부로 제출할 계획임. 도시활력증진사업은 '13년 신규사업 선정 시에도 93개 사업을 신청하여 지자체 및 지역주민으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으로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참신하고 다양한 맞춤형 도시재생과 주민중심의 지역공동체 사업발굴이 될 것으로 기대됨. 금년에도 이미 선정된 57개 지자체, 총 120개 사업에 1,086억원을 투입하여 쇠퇴하는 도심을 되살리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도시재생>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개요

추진근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사업목적	도시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개량함으로써 도시환경의 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활력증진 및 지역 커뮤니티 복원을 통해 지역경쟁력 제고
지원내용	사업비의 50% 국비지원
2013년 사업	57개 지자체 120개 사업

▶ 김원태(인천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 조례·규칙 개정사항

[2013-3-11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해 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여 건축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월 11일부터 20일간(3.11~4.1) 입법예고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적용의 완화 : 공동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범위내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용적률 완화 신설. ② 구성 : 건축위원회 구성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에 관한 규정 신설. ③ 기능 : 시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에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신설, 심의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규정 완화. ④ 심의 등에 관한 기준 :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절차 규정 신설. 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개선. ⑥ 시행령 개정에 따른 건축조례 조문 변경 등. <건축계획과>

[2013-3-29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대규모 시설 이전지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수립 운영기준 마련,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의 대상 확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기피 규정 추가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고의·불법 훼손지역에 대한 해제기준 마련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월 29일부터 20일간(3.29~4.18) 입법예고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대규모 시설 이전지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수립 운영기준 마련, ②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의 대상 건축물 확대, ③ 고의·불법 훼손지에 개발행위허가 해제기준 마련, ④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 건축 허용, ⑤ 생산관리지역에서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배관시설 건축 제한, ⑥ 계획관리지역에서 숙박시설의 건축 제한 완화(3층 → 4층), ⑦ 도시계획위원회의 해촉·제척·기

피·회피 규정 추가, ⑧ 기타 용어순화 및 어법 정비,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 <도시계획과>

□ 주요정책

[2013-3-5 군구 방문『시민과 한마음대화』 추진]

인천시장은 '소통과 화합, 주민과의 한마음대화'를 추진하고자 3월 5일 동구를 시작으로 4월 3일까지 군·구를 방문함. 올해 연두방문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대표사업을 정할 방침이며, 연두방문 과정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최종 확정하고 단기사업, 중·장기사업으로 나눠 구도심 활성화사업이 탄력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임. 또한, 주요업무보고회에서 2013년 주요시정방향인 원도심 활성화 추진,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2014 AG의 차질없는 준비와 GCF 조기정착 및 글로벌 녹색도시 추진, 3-CARE 사업 지속 추진할 것을 설명함. <자치행정과>

▪ 방문대상 : 10개 군구, ▪ 방문기간 : 2013. 3. 5 ~ 4. 3

3. 5(화)	3. 7(목)	3.12(화)	3.14(목)	3.18(월)
동구	부평구	서구	중구	남구
3.22(금)	3.26(화)	3.28(목)	3.29(금)	4.3(수)
남동구	연수구	계양구	강화군	옹진군



[2013-3-8 협업과 공유가 가능한 Map 행정 추진]

공간정보를 융·복합하고 공무원의 협업과 공유가 가능한 창조적 Map 행정 구현을 위해 공간정보 통합건축사업 착수보고회를 3월 8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개최함. 항공사진을 기본으로 맵을 통해 협업과 자료공유가 가능한 서비스 행정 구현을 위해 Cloud GIS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대시민 지도서비스를 부동산포털 중심으로 재편하고, 스마트폰 보급 증가로 지도와 부동산정보의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정책분야의 시민소통을 확대할 계획임. 또한, 2014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아시안게임 맵 서비스와 공간정보 표준화, 데이터웨어하우스 체계를 도입하여 u-City 내부시스템을 최적화하고 네이버와 협력관계를 확대할 계획임. 이번 보고회에서 숙박시설 정



보를 이용해 쉽게 지도로 구현하고, 긴급 재난시 협업을 통해 재난지도 작성 및 보고에 대한 시연과 2014년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현황을 지도로 표현함. <토지정보>

[2013-3-11 원도심 활성화와 도시만들기]



▶ 유영성(인천시 도시계획국장)

세계화, 도시화의 조류속에서 오늘날의 도시는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이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이 시대적 패러다임으로 제시됨에 따라 도시균형발전의 논리가 설득력을 더하게 되었으며 글로벌 경제위기 및 부동산 경기 장기침체로 인해 정체되어 있는 원도심에 대한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변화에 따라 인천시는 도시균형발전 차원에서 '원도심 르네상스'를 통한 함께 사는 도시만들기를 올해 최대 역점사업으로 선정하고,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도시개발 정책 및 선택과 집중에 따른 전략 수립을 모색해 신·원도심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원도심 정비사업의 부진은 사업성 확보와 시장상황 때문이며 이에 따라 인천시는 선제적 대응을 위해 2011년부터 원도심 구조개선에 착수해 진행 중이다. 총 212개소 중 지난해 2월 1차로 46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했고, 12월 2차로 20개를 해제했다. 올해 3월까지 구조개선을 완료하고, 124개 구역을 대상으로 주민요구 시 의견조사를 통해 구조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구역에서 해제된 66개와 현재 124개 구역에 대해 '인천형 마을만들기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도입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정비구역해제나 사업추진 의지가 강한 구역의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과 민간으로 구성된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했다.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행정지원을 강화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원도심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가능여부, 용적률 완화, 노외주차장 설치대상 완화, 정비기본계획의 재검토를 통해 사업성 개선 및 원주민 재정착을 실현할 계획이다.

두 사업은 기존 전면철거방식을 탈피하고, 문화와 역사를 보전한 주택개량,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는 주거환경 개선이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주민 50%가 동의하면 시장·군수가 기존 도시구조를 유지하며 마을공원, 주차장, 커뮤니티센터를 확충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올 상반기부터 설문조사를 거쳐 본격 진행할 방침이다. '인천형 마을만들기사업'은 노후 단독주택이

나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공동체식 향상을 위해 공동작업장, 텃밭 등의 제공과 인문학적 요소를 가미해 고유한 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한 사업이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23일부터 원도심 8개구 정비사업구역 일제점검을 실시해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마을만들기사업의 추진 및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인천시 마을만들기 지원조례'를 4월 제정하고, 5월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지구를 선정해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시의 지원을 기본 원칙으로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며 사업목적은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환경보전 및 공공시설 설치, 마을일꾼 교육 및 육성, 공동체 활성화, 일자리 창출, 문화·역사 보전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해제지역에 대한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개발이 중단되고, 정체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원도심지역에 대해 원주민 정착률 100%를 목표로 '깡이부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같은 인천형 정비사업 모델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지역별 특화사업으로 육성하여 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 본 내용은 2013년 3월 11일 인천일보 자치현장에 기고된 내용임.

[2013-3-17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수립사업]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는 '묻지마 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건축물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을 수립·시행함. 가이드라인은 건축심의 대상인 300세대이상 공동주택, 16층 이상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건축물의 설계시 공간의 특성을 높여 범죄발생 기회를 줄이고 거주민에게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설계에 반영토록 할 계획임. 공동주택의 경우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배치하고, 어린이 놀이터는 사람의 통행이 많으며 각 세대에서 볼 수 있는 곳에 계획함. 지하주차장은 경비실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자연채광 및 시야확보가 용이하도록 천창 등의 설치를 권장할 예정임. 아울러, 주거 밀집지의 경우 옥외배관을 타고 오를 수 없도록 요철덮개를 설치하고, 사각지역에 보안등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해야 하는 등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세부 기준을 정해 시행함. 대상 건축물의 경우 건축심의 신청시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에 따른 '설치계획서', '평가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함.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조



성하고 시민이 쾌적한 삶의 공간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임. <건축계획과>

▪ "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 사례

단지 주출입구



외부인의 자유로운 출입



상징물 설치로 영역성 강화

지하 주차장



시아차단 칸막이 설치



개방된 구조 및 조명확보

도시가스 배관



가스배관을 이용한 침입



방범용 가시되게 설치

[2013-3-24 군구 도로명 주소 홍보에 전념]

오는 2014년 1월 1일부터 생활주소를 종전 지번주소 대신 도로명 주소로 사용하여야 함. 그 동안 인천시 도로명 주소는 지난 2011년 7월 법정주소로 고시된 이후 공적장부와 공공기관의 전산시스템을 도로명주소로 전환 완료하고 전면 시행준비에 전념하고 있음. 하지만, 실제 시민들은 아직 생소하고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주소로 인식되어 공공기관에 비해 사용 빈도가 현저하게 낮은 것이 현실임. 인천시와 각 군구에서는 올해가 도로명 주소의 정착여부의 중요한 해로 보고 다양한 홍보 활동에 전념하고 있음. 매월 셋째주 화요일을 "도로명 주소 홍보의 날"로 지정하여 시, 군구 합동으로 길거리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출퇴근과 업무용 대형관용버스 외관에 도로명 주소 안내 홍보물을 부착하여 길거리 홍보를 실시하고 있는 등 시민 홍보에 전념하고 있음. 도로명 주소에 대한 사용이나



검색요령 등은 도로명 주소 안내 시스템(www.juso.go.kr)에서 자세하게 알 수 있음. <토지정보과>

[2013-3-25 희망의 집수리-주택에너지 효율화 사업 업무협약 체결]

현대제철(주) 인천공장, (사)한국주거복지협회와 「희망의 집수리-주택에너지 효율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함.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체결한 이번 협약에서 인천시는 대상자 조사 및 업무지원, 현대제철은 사업비 조달, 한국주거복지협회는 사업 시행을 맡게 됨. 희망의 집수리사업은 창호교체, 단열재 설치 등을 통해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주택에너지 효율화사업'과 에너지 절약 물품지원 및 교육을 병행하는 '가정에너지 코디네이터 사업'으로 구성됨. 금년에는 총 90세대를 대상으로 4월초까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현지실사를 거쳐 최종 선정후 사업을 진행하게 됨. 인천시는 기업과 시민단체가 어려운 이웃에게 봉사하고, 지역발전에 함께하는 사례가 사회전반으로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건축계획과>



[2013-3-27 제2회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 일 시 : 2013. 3. 27(수), 14:35 ~ 15:35
- 장 소 : 영상회의실
- 참 석 : 27명중 20명 참석
- 총 2 건 (원안 가결 1, 보류 1)
-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안건 번호	안 건 명	개 최 결 과
1	<주거환경정책관실> 구월삼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결정(안)	• 원안 가결
2	<주거환경정책관실> 부평2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안)	• 보류

<도시계획과>

- ▶ 김원태(인천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